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와 차질없는 해운재건 수행**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인내와 우직함,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소처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양수산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확산으로 국가경제와 해양수산업계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해양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HMM은 ‘20년 2분기 영업이익이 2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2만 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투입하여 24항차 연속 만선을 기록하는 등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선복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법, 친환경 선박법, 어선안전조업법 등 새로운 법률의 시행을 통해 해양환경 관리와 사고예방 체계의 선진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업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운·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8차례에 걸쳐 총 2조 5,3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실행하여 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에도 해양수산업이 국가경제를 굳건하게 떠받치고,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와 해운재건을 차질없이 수행

하여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수출항로에 임시선박을 신규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적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만 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신규로 투입하고, 운용리스(BBC) 방식을 통해 ‘한국형 선주사’를 육성하여 선복량 확대는 물론, 선사의 선대운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방식도 신용 및 계약이행보증 등으로 다양화하여 해운업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 등 주요 거점항만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항만배후단지과 해외 물류거점도 확충하여 수출입 화물의 처리는 물론,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수립한 ‘2030 그린쉽-K 추진 전략’에 따라 LNG 등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와 공공·민간에 대한 보급을 촉진하고, 수소 등 무탄소 기술의 신규 개발을 추진하여 2050년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 대규모 이산화탄소 해저지중저장(CCS) 기술 개발, 갯벌과 바다숲 조성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력 향상에 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22년까지 30% 이상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와 부표의 보급을 확대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새로운 관리수단도 도입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디지털 전환과 해양바이오 등 혁신산업 성장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운항만물류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양식 및 어업관리, 스마트 유통·가공 등을 통해 수산업에도 스마트 가치사슬을 확립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화 인큐베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항바이러스 대응기술 등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항만, 해수욕장 등 해양수산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긴급경영자금 등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의 대국민 서비스 개시로 해상안전관리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선원의 근로·복지 향상,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해양수산 분야가 코로나19라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선도형 혁신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해양수산 가족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파도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속에서도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불빛보다 밝은 등대가 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모든 해양수산 현장에 풍요와 번영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사장

## “해운재건계획의 차질없는 후반기 이행과 미래 성장기반 마련”

존경하는 해양산업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양산업 발전을 응원해주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웠던 경자년(庚子年)을 보내고 이제 신축년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새해를 맞아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화평, 그리고 우리 해운산업의 활력과 도약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모든 경제활동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 멈춰버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코로나19로 직면한 위기를 ‘멈춤’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수출입 경제의 근간인 해운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도전과 대비도 지속해나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주신 해양산업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해운산업 발전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해운재건 계획에 맞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해운선사들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공사는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과 유동성을 공급하여 총 80개 해운기업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S&LB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선사의 원리금 상환 유예, 회사채 인수와 같은 신규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국적선사의 영업과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례없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HM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어 21분기 만에 영업흑자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근해 컨테이너선사 간 자율적 인수합병을 통해 탄생한 K2 통합법인이 필수 영업자산을 확충하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선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친환경 경선박 전환 및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함으로써 해운산업 환경변화에 조기 대응하도록 뒷받침하였고, 우수 선화

주 인증센터 개소를 통해 국적선사의 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적선사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발간하는 시황정보의 품질을 향상하고, SNS 채널을 운영하는 등 사용자를 위한 해운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한국형 건화물선 운임지수(KDCI) 발표를 개시하는 등 국적선사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해양산업가족 여러분, 2021년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들어서는 해입니다. 새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후반기 이행과 함께 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재건 계획 후반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적선사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조 및 중고선박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항만터미널, 배후물류시설, 친환경설비에 이르기까지 국적선사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선박 재금융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기적소에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 해운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국적선사가 필요로 하는 해운금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남아항로 시장에서 컨테이너선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고, 시

장의 요구에 따라 기존 선박 도입 및 S&LB 사업을 운용 리스로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선사맞춤형 선대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공사법에 따라 보증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선사가 필요로 하는 이행보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LB 사업의 LTV를 확대하고 상환유예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경영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선사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회사채 인수, 신용보증기금 P-CBO의 해운선사 편입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해운시황정보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운선사의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지수 및 운임예측모형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적화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해운지수의 공신력을 확보는 한편, 선종별 운임예측모형의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나아가 선박명세, 선박거래, 선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적선사의 핵심자산인 선박의 가치 및 LTV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택트 기술을 활용한 선사와 관계자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사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수출입 권운송 지원과 국가적 해상운송능력 신장 노력”**

존경하는 국내외 해운가족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운가족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해운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IMO 2020 황산화물 배출규제의 시행으로 시작된 작년 한해는 연초

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사상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확대되면서 위기상황이 연속되는 비상한 한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등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해운산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지정하고 꼼꼼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간 봉쇄 조치로 여행과 이동이 금지되면서 세계무역의 핵심인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노사정이 합심하여 마스크를 제공하는 한편 합리적인 방역지침과 특별기 취항 등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선원교대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부터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백신에 대한 사용승인 소식과 함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코로나 여파가 진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 컨테이너 운송수요가 폭등하면서 애로를 호소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선박을 투입하고 정부 및 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해운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해운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지속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여파가 진정될 경우 내구재 수요와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상황전개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점차 긴축 통화정책으로 선화한다면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국제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의존 개방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세계경제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는 철저한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매사에 조심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해운산업 재건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회원사들이 작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운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재확인된 만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적인 해상운송능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하여 방역에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갖춰 선박운항과 항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통해 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토니지뱅크라는 새로운 역할도 내실 있게 하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성된 K-얼라이언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과당경쟁완화 및 경쟁력강화를 통해 수출입항로는 물론 동남아시아 역내 3국간 항로에도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화물확보와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이라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선화주 협력을 통해 정기화물 70%, 부정기 전락화물 100% 국적선 적취율 달성을 지속 추진하고, 선박금융재원의 균형잡힌 배분으로 해운·조선·금융이 상생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2자물류업계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연관산업과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해운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탄소세 설정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양사고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처벌부과 및 혼선을 빚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쟁법제 등이 우리 경제상황 및 국제규범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해운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선급, P&I클럽 등 해운관련 단체 및 업종간의 상생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가족 여러분! 우리 협회는 지난해 11월 1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지난 60여년간 사용해 온 한국선주협회 명칭을 한국해운협회로 변경하고, 창립일도 협회 전신인 대한선주협회 창립일 1954년 4월 20일로 소급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선주협회가 60여년 만에 우리나라

를 세계 7위의 해운국 반열에 올려놨듯이, 앞으로는 한국 해운협회가 해운산업 재건을 통해 세계 3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해운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그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

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 당국과 해운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오대양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해상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코로나19 여파 조기극복과 업계전체 상생 모색”**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해상직원 여러분과 항만하역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소소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장기 불황 끝에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경기 침체의 골을 깊게 만들었으나 다행스럽게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운임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선사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며, 조선업의 수주 실적 또한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세계적인 장기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경영혁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의 종료로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작되었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해선사와 연안여객선사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국제해사기구의 고유항유 사용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 또한 여전히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해운중개 및 항만하역 업계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 이어서 P&I 보험 및 선급, 조선 및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회복 또한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새해에도 우리 해양산업 전반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해양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올해를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산업계와 노동계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해양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정권 교체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회원단체 및 기관들의 중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 체계를 상설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회원단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강국의 문화적, 정신적 기반을 다지고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등의 사회공헌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회원단

체 및 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 관계자와 해양 관련 기업 및 단체,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시는 모든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는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해양산업 또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이형철 한국선급(KR) 회장 “미래 메가트렌드 주도할 신기술 확보로 단단한 성장기반 마련”

존경하는 임직원 및 해사업계 관계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KR 임직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해운 및 조선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국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해사업계와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국회, 해양수산부 등 모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창립 60주년이었던 2020년은 KR의 저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신조선 발주량 급감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디지털선급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및 심사품질을 제고하여 선사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환경규제와 관련한 고객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고객관점의 기술서비스도 강화하였으며, 대형조선소·해운사와의 공동연구 등 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여 KR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쌓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등 유의미한 한해였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이 고객을 우선하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기술단체로서의 소임에 매진한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잘 극복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 세계 검사 현장과 본부에서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KR의 든든한 우군이신 고객과 정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선진국·신흥국 간 경기회복 불균형, 그리고 미중갈등 지속에 대한 우려 등 세계 경제에 대한 다양한 변수는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언택트 기술과 친환경 규제 강화는 새로운 경제·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기반으로 미래 메가트렌드를 주도할 신기술 확보에 힘써 단단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KR도 우리 해사업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디지털기술 확보로 디지털선급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엔진 고장진단 및 예측 기술(CBM) 개발 △3D 모델 기반 구조설계승인 시스템 개발 △VR 기반의 검사원 교육훈련 시스템 고도화 등 핵심



디지털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태블릿 기반 도면열람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자재 검사 신청 및 승인시스템의 고도화 등 선급 운영시스템 전반에 디지털화를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2023년부터는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인 EEXI가 강제화되고 Carbon Intensity Rating을 선박별로 A에서 E등급까지 분류하여 매기게 됩니다. 이런 규제 강화는 해운산업 탈탄소화의 시작입니다. 해운업에 대한 EU ETS 적용 및 금융권의 Poseidon Principle 도입 움직임 등 탈탄소화는 전 지구적인 변화로 해사산업 전체에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박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함께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대체연료 기술개발로 이어질 탈탄소화 메가트렌드 속에서 KR은 우리 해운 및 조선산업이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그린쉽-K전략에도 적극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 산업생태계가 구현되도록 산업 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검사품질 향상 및 등록선 안전 확보입니다. 선박안전 모니터링의 철저한 시행과 더불어 검사원 직무역량 교육의 강화를 통해 잠재적 해양사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해 KR의 등록선 안전 확보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검사품질을 제고하여 항만국통제의 지적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사에게도 항만국통제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및 해사업계 관계자 여러분, 우리에게 친근한 ‘총, 균, 쇠’의 저자이며, 세계적 석학인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위기상황에 직면한 국가 중 정직한 자기평가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 그리고 선택적 변화로 대응한 국가나 조직만이 위기를 극복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해사업계도 역사상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으며, 우리는 그동안 정직하게 성찰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는 해운재건의 성과를 통해 이 강력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었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은 KR은 이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해운 및 조선산업의 기술 조연자로서 그 어떤 조직보다 먼저 신기술을 연구하며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상징인 ‘흰 소’와 같이 부지런함과 우직함으로 KR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고객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도 해사업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 정부 당국과 해사업계 관계자, KR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영안 Korea P&I Club 회장**

## “우리 해운산업의 상생발전 기여에 최선을 다하러”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의료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선원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

리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회원선사 및 해양수산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업계는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우리 클럽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여 한중 여객 선사들에 대한 여객담보 보험료 환급 등 조합선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전 세계 재보험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도 내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업계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Korea P&I Club은 함께 노력하고 힘쓸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운협회에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12월 제5회 회장단회의 결의를 통해 해운산업과의 공생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클럽에 선박 추가 가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회원선사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Korea P&I Club 모든 임직원은 해운업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흰 소'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Korea P&I Club도 '흰 소'처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지혜를 가지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전운항을 함께 기원합니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원에 대한 인식 제고하는 대국민 캠페인 전개하러”**

친애하는 7만 선원 동지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이 저물고 새희망의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도 선원노련은 선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 수많은 고난과 예기치 못한 고통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지금도 그 위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선원노련의 2020년도 코로나 대응으로 시작해, 코로나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해운수출입 국가의 항만은 폐쇄되거나 입출항이 통제되며 대한민국 선원은 극심한 이동의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국의 수많은 선원들이 승하선은 물론이고, 자국에서조차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예방 필수품인 방역마스크의 품귀현상이 벌어졌고 대한민국 선원은 감염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를 약국과 우체국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승선 중인 우

리 선원들은 원천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선원노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선주단체, 선사와 끈질긴 협의를 통해 공적마스크 확보 및 직접 구입을 통해 현재까지 100만장의 마스크를 선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선원의 건강과 대한민국 해운수산 현장이 멈추는 일을 막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며, 정부는 선원에게 하선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렸고, 이에 선원노련은 수차례 성명 발표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정부당국자와의 끈질긴 논의와 설득으로 정부 조치를 한달만에 철회시키는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 일부 선종과 조건에 한해서는 면제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급 당국자들과의 대화에서 매번 항해 기간은 사실상 격리나 다름없다는 뜻을 전했지만 선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에 대해 마음 속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승선이 격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집회조차 코로나19에 막혀 쉽지 않



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수십 년간 해왔고, 그 일선 현장에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물량이 많은 거대한 선박일수록 승선 선원의 모습은 더 작아졌고, 빨라진 운항속도만큼이나 선원의 자취는 더욱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생필품은 물론, 생존에 절대적인 마스크와 소독제, 의료용품의 원료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선원들이 코로나 위험국가에 가서 그것을 들여온다는 사실은 정부 당국자와 국민은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선원들은 사회와 가족과 떨어져 일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선원들 마음속 응어리진 서운함, 외로움을 넘어 피폐해지는 몸과 마음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은 선원을 더욱 더 중심에 두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선원 동지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0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울어져도 원위치로 돌아오는 복원성으로 파도를 넘는 선박처럼, 2021년 신축년의 물살을 가르며 모두 다 함께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장**  
**“범국가적 해기전승 정책적 컨센서스 이뤄나가”**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해였습니다.

특히 코비드19의 창궐로 인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들이 밀려왔습니다. 해기사들의 경우,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교대가 엄청난 제약을 받음에 따라 상륙도 하선도 못한 채 승선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해운, 특히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정기선 분야에서 급격한 시황 상승이 일어남으로써,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으로 건조된 2만 4,000TEU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기 시작한 'HMM(구 현대상선)'을 필두로 여러 컨테이너선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기가 해운산업계 전반으로 널리 퍼져나가기 기대해봅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해육상을 망라한 '범국가적 해기 전승 로드맵 수립'에 힘을 쏟았습니다. 6개 관련 단

체와 공동으로 '해기전승 TFT'를 구성하여 해기 전승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 검토를 하고, 해기전승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 정립과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조율과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 정책적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해기사와 선박 운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징벌적 법령, 징계 등의 개선을 위한 검토 및 연구를 하고, 해기사가 진입할 수 있는 육상 해기직과 해기사들의 개개 보유 직능을 DB화함으로써 해기사의 육해상 경력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는 해기사와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우보만 리(牛步萬里) 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업계 관계자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면 더욱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비상할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조합원 경영지원 강화, 사업하기 좋은 경영 생태계 조성”

존경하는 해운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불안과 걱정이 많지만 어김없이 신축년 새해는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댁내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하신키 먼저 안부를 여쭙습니다.

지난해는 지속적으로 바쁘고 우려스러운 시간 속 모든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해운업계 또한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조합은 작년 조합원사의 고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각종 부담금을 인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반성장 사업 추진, 공제 상품 개선, 선원 안전용품 제공 등 다양한 해운업계 지원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상분야에서도 최근 5년간 총 240억원 공제로 인하여, 보험료 환급제도 신설, 보상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대부분 해외 IG Club의 GI(일괄인상율)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합 P&I 요율동결을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12월 법안을 통과한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성과는 향후 환경규제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합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해운가족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합은 2021년 올해도 조합 구성원 모두가 ‘조합원 중심의 조합’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해운산업 성장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경영지원 강화, 사업하기 좋은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계속되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항선박에 적합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 있는

공급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과 선박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원, 해상안전·해양환경 관련 법령 제·개정, 국제협약 등의 국내법 수용 시 국내 해운산업 현실이 반영되도록 능동적 대응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조합의 지속적인 주력사업인 내항선원 공급 부족 해소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합 공제에 있어서는 조합원 중심의 상호공제 부조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조합 자체 요율체계 구축, 조합원의 걱정 손해를 관리제도 도입, 안정적인 효율적인 위험분산을 실현하며 든든한 보상서비스 제공, 조합 공제상품고도화 및 신규상품 개발을 통한 외연 확장, 조합원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다각화 등을 통해 지속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내부적 조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이 동시에 원원하는 경영,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해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1년,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의 소중함이 간절한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찬 하루하루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웃으며 다시 뵙는 날까지 항상 해운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상현 한국도선사협회 협회장

“도선사 선원 최우선 예방접종, 정년연장, 도선료 현실화에 노력”

존경하는 도선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의 태양만큼은 어제와는 다르기를, 건강과 좋은 일로 가득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부의 유무 등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위협이나 간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혼란과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교류해왔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변화에 적응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료현장의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현장에 항상 자리하던 군인, 소방관, 경찰, 교육자, 택배기사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헌신했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우리 주변의 아주 많은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을 헌신했기에 위기의 순간을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바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인적 교류가 멈춰버린 지금, 이와는 대조적으로 점차 폭증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구매의 열풍과 수출입물량의 증가. 이러한 세계 물류의 맥이 끊이지 않고 필수 자원과 필수품을 전달해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현장의 해기인(Mariners) 덕분이었고, 항만의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배웅한 전 세계 도선사의 헌신과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방역물품과 검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도선사들은 안전에 대한 보장이나 선(先) 검역 없이도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선에 임해왔습니다. 때로는 선용품 공급이 필요한 위험 선박을

오르며 인류애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일인지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기술, 최상의 노력’을 통해 혼란과 위기 속에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위험 요소가 산재한 현장을 누비는 도선사와 함께 조력하는 도선관계자,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에 많은 염려 속에서 부단히 노력했을 그들 가족의 보이지 않는 희생까지, 실로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 날까지 우리 항만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전 세계의 해기인(Mariners)과 도선사 및 도선관계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선업무의 현안을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도선사, 선원이 우선 예방접종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무릅쓰고 검역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입출항 선박에 승하선하는 도선사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관계부처에 최우선 예방접종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8월 30일에 정년연장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도선구에서 필수도선사 지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필수도선사 지정 숫자를 확장하는데 진력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모든 산업이 코로나로 그 타격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업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도 2020년도 도선료 매출이 전년도(01~11월)에 비해 20%까지 하락한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데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외국 주요 항구의 도선료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선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도선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

정입니다.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에 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관련 단체와 함께 해사법의 법정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연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도선사의 승하선 안전을 위한 우리 협회의 노력도 계속됩니다. 2021년에는 국제도선사협회(IMPA)와 협력해 승하선사고에 따른 희생자가 더 이상 없도록 '승하선 안전 캠페인(IMPA Safety Campaign)'에 더욱 집중하고 홍보에 힘쓸 것입니다. 덧붙여 IMPA의 도선사 승하선연구 워킹그룹에도 아시아 대표로써 참여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새해 인사는 '도선지 70호 발간'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988년 창간한 우리 협회의 '도선지'는 도선업에 관한 국내 유일의 전문지를 표방

하며 국내외 도선제도와 소식을 전해 관계자에게 도움을 주고 도선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조선왕조 600년을 담아낸 '조선왕조실록'이 있다면 도선지는 대한민국 도선업의 역사와 도선사의 역할, 활동을 모조리 담아낸 우리만의 실록일 것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주는 특별함을 음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구성에 변화를 줘 앞으로 초대석, 도선연구, 자유기고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선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과도 가감없이 교류해 소통하고 저변을 넓혀 더욱 유익한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선가족 여러분!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여파는 계속될 예정이며, 예상치 못한 위기와 난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현명하게 헤쳐나간 저력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합시다. 2021년에도 협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종성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 “항만물류시장의 경쟁력 강화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존경하는 해운·항만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올 한해도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을 적게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 등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여러 악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우리협회 또한 지난 한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출입 물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항만하역근로자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 줄 것을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해운·물류 생태계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포스코 그룹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협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효용성을 무시한 포스코그룹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재검토하라는 지적과



비판들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꾸준히 추진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해운항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항만물류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협회는 이러한 대내외적 위험요소들을 극복

하고 2021년도 협회의 사업계획을 차분하게 추진하여 항만물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수일 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안전·환경위 조직해 선내 조직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존경하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되고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신축년 흰 소피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만들었고, 이에 국가간 봉쇄조치로 인하여 항만간 이동이 어려워진 해운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박관리산업도 선원교대 불가, 수리조선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리 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개선사항을 건의하였고, 외국인 임시격리생활시설 설치와 해외선원 본국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선원교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노사정이 협력하여 해외취업선원을 위한 마스크 3만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질병 확산을 막고자 협회 교육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2020 한국선박관리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여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협회에 구축하였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승인되고 백신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보아 코로나19의 종식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고, 국제 환경기준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기술 도입이 가속화되어 스마트 선박과 항만의 등장도 머지 않았습니다. 결국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그리고 낫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가 직면한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외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다음 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를 조직하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내 조직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강화와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을 검토하여 신규시장 개척에 힘쓰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지원정책, 해외취업해기사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원고용권 확보와 선박관리산업의 업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선박관리산업관련 국내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노사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선원의 경쟁력 재고방안을 마련하고 선원 직업의 매력화 및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스마트선박과 LNG연료추진선 관리인력의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보험 등 신규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섯가지 추진전략으로 국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선박관리산업을 해운 재건을 넘어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치료와 방역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묵묵히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물자 수송에 힘쓰시는 해상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축년의 좋은 기운을 가득 받아, 지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재훈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 “대리점수수료 표준요율제 도입 등 해운선진제도 정착에 노력”

존경하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알리는 태양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 순조롭게 이루시고, 회원사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금세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뉴노멀이 불러온 변화는 경제에 한정되어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비대면 등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헤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한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오늘날 대리점업계 기틀을 마련하는데 수많은 고초를 마다하지 않은 선배님들의 노고를 되새겨 보는 한국국제해운대리점 50년사를 발간하였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8곳의 회원사를 새로 가입시켰으며, PCR(유전자증폭)음성확인서 관련 건의로 선원들의 국내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선박 운항이 중단되어 물류 대란이 없

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물품 목록은 적하목록 제출로 같음한다고 탄원서를 내는 등 각 분과 위원회의 노력과 활성화를 통해 해운물류 관련 기관 등과 원활한 유대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협회의 각 분과위원회와 회원사 간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 발전시킨 협회 임원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회원사의 업무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과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항만운영제도, 안전운임제도 등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리점수수료 표준요율제 도입으로 외화 수입을 늘리고,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미뤘던 협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회원사 대표와 업계 원로 및 관계자 등을 모시고 가질 계획입니다.

2021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외 전망보다 높게 3.2%로 잡은 정부는 지난해 잠정 성장률을 한참 밀돌았던 경제가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의 재정 집행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시작



하는 등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철저한 금융·외환시장 관리 등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4.2%,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은 4.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21년 3.2%, 2022년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도 내년 정기선 해운시장 전망은 밝은 상황입니다. 건화물선 시장 역시 중국의 수요 강세가 예상됩니다. 2020년 선사들은 선복량을 대폭 감축하며 수익을 얻음으로써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하는 뉴노멀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이라는 견해와 함께 현재 스팟(현물운송)운임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공 컨테이너박스 수급 불균형과 항만 적체 등으로 북미 서안과 유럽 노

선의 운임이 급등했습니다. 이 현상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선화주 간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추가 선복 투입과 항만 내 혼잡과 내륙운송난, 컨테이너 부족 등의 극심한 물류 장애를 우선 해소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기관과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회원사의 번창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병진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회원사 권익보호 제도개선사업, 대외 협력사업에 최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2020년 전 세계는 바이러스라는 인류 공동의 적과 지루하고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백신개발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노력으로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는 없었지만 급격한 운임인상과 물류 흐름 침체로 인한 물류비 상승

으로 화주기업과 국제물류기업의 부담 가중에 따른 경쟁력 저하는 결국 국가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많은 기업들의 도산을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대외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를 비롯하여 정부-민간 간담회 참석을 통해 국제물류업계의 현실을 적극 개진하였고, 물류산업의 부담이 종래에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향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에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왔던 FIATA 세계총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우리나라의 물류강국 입지 강화와 물류산업 도약 기회 활용 노력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총회 개최를 2022년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욱 활발한 개최 홍보를 수행할 예정

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2022 FIATA 부산 총회 준비에 다같이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운영기관으로 8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 교육의 비대면 과정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물류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물류전문가 육성과 업계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6년 임기동안 협회 회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혼신의 힘과 역량을 다하여 업계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또한 FIATA 부회장으로서 여러차례 개최된 FIAT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물류 현황과 부산총회를 널리 홍보했습니다만, 그 결실이 다소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새로이 선입

될 협회장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1년에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업으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대외 협력사업으로 KOTRA와 공동으로 국제운송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및 4차산업 혁명시대의 물류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확충, 협회와 회원사간 소통 증진을 위한 회의 개최와 행사 추진 등으로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축년 한해 회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회원사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길 빌어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해양안전 인프라 조성에 공단의 역량 집중”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길 바라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공단이 종합 해양안전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미션 아래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갖고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행복한 바다’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포와 인천, 그리고 부산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플랫폼인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사고, 기상정보 등이 담겨 있는 해양교통안전정보 DB플랫폼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해주는 e-Navigation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해양사고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공단의 해양교통안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해운·조선·항만·수산을 비롯한 해사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안전 인프라 조성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안전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목포에는 첨단 시



설·장비를 활용한 중소형 선박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선박종사자를 포함한 해양교통이용자의 원스톱 체험형 안전교육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선박안전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시, 한국해양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가칭)해양안전연구협력센터를 건립하여, 해양안전 R&D 기술개발, 해양수산업 중소기업 지원, 해양교통분야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해양안전 체계 구축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개발 등 미래 해양안전기술력을 확보하여 해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래 해양교통환경에 대비한 친환경 플라스틱 선박 및 전기복합 추진 어선 연구를 적극 수행함과 동시에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시스템 개발과 이와 관련한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 사고 정보, 기상정보 등 해양교통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제안 및 기술개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바다라는 넓은 공

간에서 국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들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더 많이 찾아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강국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바다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해양안전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지, 해양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식, 바다의 도전과 위험을 기술과 과학으로 이겨내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를 향하는 온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모두의 안전한 바다가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 거듭난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직원 모두는 새해에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공단을 믿고 지지해주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에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해양환경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 충실히 행”**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신축년소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년 내 지속되어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위기 극복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공단의 사명과 조직문화 혁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및 협력업체와 상생 강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이라는 공단의 비전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해양환경 분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 및 해양미세플라스틱과 해양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갯벌복원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그린 뉴딜사업의 친환경적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생태축 관리,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및 항만지역 대기질 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와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잠재적인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치선박 및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사업과 더불어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기름어과장치의 현장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13개 오염물질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목표·마산·광양 사업소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점진적

으로 확대해나가고, 해양재난대응을 위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환경 인식증진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반려해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공단 사옥에 어린이 해양환경교육체험관 조성, 해양환경 관련 공모전 및 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승리는 가장 끈기있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간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이 있습니다. 2021년 흰 소의 해를 맞이하여 해양수산인 모두가 소와 같이 책임 있고 성실하게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반드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양환경공단도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 “해양수산 분야 싱크탱크역할로 새로운 도약 위해 최선을”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다사나난 했던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해양수산업계에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국내외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국내외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업계는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수출 분야는 세계 7위를 달성하였으며, LNG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은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로 세계 최대사이즈 선박을 운영하는 HMM은 코로나 태풍을 헤치면서 10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전남 만재항에서 첫 결실을 맺었으며, 수산물 공익직불제의 시행,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인 'HL 에코'호와 'HL 그린'호의 출항 등 다방

면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에도 발전과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분야의 싱크탱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

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신성한 기운을 가진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소'의 신성한 기운이 코로나19를 몰아내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상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호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이사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시장 진출, 수출실적 향상 만전”**

존경하는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가족 여러분! 신축년 소의 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2019년 대비 51.3% 급감했고 업계 최악의 불황이었던 2016년 보다도 7%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저유가와 물동량 감소,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이 급감하는 한편 신규영업을 위한 국가 간 이동마저 막혀 산업계의 위기감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4분기 15조의 수주 잭팟과 함께 막판 뒷심을 발휘한 국내 조선사들이 새해에도 '수주릴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정책이 더욱더 각광받으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조선 3사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QP와 2020년 상반기에 슬롯계약한 100여척(총 23조 6,000억원)의 카타르 LNG 운반선 계약도 본격화 되어 건조에 돌입할 전망이다.

KOMEA는 격변하는 세계 조선해양기자재 시장 질서 속에서 국내 조선해양산업계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진기지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정되었던 해외 유명 전시회 한국관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되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화상상담회, 온라인 전시회를 주관하여 KOMEA 회원사 등 국내 조선해양기자재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일조했습니다.

KOMEA는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27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거점기지 구축·운영(중국 상해, 싱가포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그리스 아테네 5개기지)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 설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최종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KOMEA의 글로벌 5개 해외거점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실적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2021년 구축될 사우디아라비아 거점기지를 통해 중동권역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대중공업과 협력하여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글로벌 마케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 효과 극대화 와 더 나아가 국내 조선소와 해외바이어에게 우리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및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에 더욱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역현장의 애로 해소에 총력 기울어”**

존경하는 무역인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도 무역인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의 위세 앞에 세계 경기는 침체되고 교역은 위축되었습니다. 긴밀하게 얽혀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는 뒷걸음질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기업인 이동제한, 물류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년 연속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수출 강국의 위상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수출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컴퓨터, 가전, 가공식품 등의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상승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무한한 열정과 쉽 없는 노력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신 무역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역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수년이 걸렸을지 모를 거대한 변화를 단 몇 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된 일상이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연결되면서 제조업 혁신과 산업간 융·복합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해 생산거점을 옮기면서 리쇼어링, 니어쇼어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류가 전 지구적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이 주도하던 탄소중립 대열에 미국과 중국이 합류하면서 다가올 기후변화 시대를 주도하려는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자간 협력이 중시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등의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는 등 기존 통상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역인 여러분, 올해 저희 협회는 이러한 대전환의 기로에 선 우리 무역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수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역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인들이 해외 출입국과 수출입 물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마케팅을 결합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바이어-셀러 매칭, 유망품목 AI 보고서 등은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유망 신산업과 전략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발



맞춰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무역의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회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통해 무역인력 양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무역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역인 여러분, 최근 백신의 보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

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경제가 보편화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협업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무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무역인들의 혁신과 도전정신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1년은 상서로운 기운을 품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은근과 끈기, 참을성을 지닌 소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한국 무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무역인 여러분의 큰 성취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인**

### 업계신간

## JSM인터내셔널 변재철 회장의 회고록 '소동 주해기(昭東 舟海記)' 출간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발간, 김성준 교수 집필-

선원선박관리 전문기업인 JSM인터내셔널 변재철 회장의 회고록 '소동 주해기(昭東 舟海記)'가 (재)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출간됐다.

JSM인터내셔널의 25년사를 겸한 '소동 주해기'는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가 집필했으며, 본문과 부록 등 총 390여페이지로 편집돼 있다.

본문은 △출생과 성장 △해양대학과 청년기 △협성해운 시절 △라스코 재직기 △JSM인터내셔널 경영기 제 5장으로 구성돼있으며, 부록으로 JSM 고객사 목록과 라스코 해외취업 선박목록이 수록돼있다.

JSM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라스코해운은 1968년 설립됐으며 필리핀, 중국, 우크라이나 선원 등을 관리했

었다. 1994년 변재철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95년 사명을 제이에스엠(JSM)인터내셔널(주)로 변경했으며 2004년부터 국내 내항선 외국인 선원과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4개국 선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선주 13개사의 2,000여명 선원을 관리하고 있다.

